

'93회계연도 우량물건 현장조사 결과 분석

이 기 완
(기술관리부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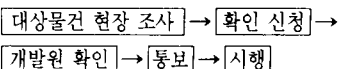
1. 머리말

우량물건 할인제도는 현행 요율 체계인 등급 요율(Class Rate)로서는 적정 위험률을 반영키 곤란한 고액의 기업형 물건을 대상으로 과거의 손해 실적과 구내의 화재 위험 정도 및 위험관리 상태를 평가하여 그 성격에 따라 화재보험 요율을 최저 2%에서 최고 25%까지 할인하는 제도이다.

국문요율과 영문요율의 이중 구조는 적용상 혼란과 보험 불신을 야기할 뿐아니라 요율 체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국문요율 사용 확대를 유도, 요율체계를 개선하여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93년 5월 1일 이후 책임이 개시된 계약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현장조사는 특수건물의 경우 화보협회에서, 비특수 건물은 사원사 및 화보협회에서 실시하였으나, 모집 질서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모집정상화대책위원회 회의('93.6.9)결과에 따라 특수건물은 물론 비특수 건물의 현장조사 업무까지도 화보협회에서 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할인을 적용 절차는



'93회계연도('93년 5월~'94년 3월)에 화보협회에서 실시한 우량물건 현장조사는 특수건물 1천 3백10건, 비특수건물 8백47건, 총 2천1백57건(방산물건 및 재확인 물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2. 특수건물

가.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별 분포 현황을 보면 <표1>과 같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4대 도시가 전체의 74.5%(976건)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지역이 전체 대상 건수의 21.1

%(277건)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나. 만기 월별 분포 현황

만기 월별 분포를 보면 <표2>와 같으며, 12월이 전체의 14.3%(187건)로 가장 높으며, 3월 5.5%(72건)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4분기(10월~12월)가 전체의 31.6%(414건)를 차지하고 있다.

다. 지역별, 사유별 비대상 현황

전체 대상 건수 1천3백10건중 3백92건의 손해를 40% 초과 등

<표1>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별	서울	부산	수원	성남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주	울산	계
건 수	240	28	16	42	263	196	277	82	50	22	94	1,130

<표2> 만기 월별 분포 현황

만기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 수	92	78	72	101	123	117	133	91	89	109	118	187	1,310

<표3> 지역별, 사유별 비대상 현황

지역별 사유별	서울	부산	수원	성남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전주	울산	계
경과년수 미달	5	1	0	5	16	15	14	1	7	1	1	66
손해율40% 초과	28	4	0	2	46	10	25	8	3	2	4	132
20억원 미만	18	5	1	5	16	24	15	12	2	2	5	105
기 타	21	1	3	5	25	4	11	3	1	3	12	89
계	72	11	4	17	103	53	65	24	13	8	22	392
비대상율(%)	30.0	39.3	25.0	40.5	39.2	27.0	23.5	29.3	26.0	36.4	23.4	

으로 비대상되어 비대상률은 29.9%로 높게 나타났다.(<표3> 참조)

대상 건수 대비 비대상률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성남(40.5%), 부천(39.3%), 부산(39.2%) 지역이고 울산(23.4%)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풍·수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율이 높게 나타나 비대상이 많으며, 신발업종의 사양으로 인한 부도, 폐업 등 비대상이 많이 발생했다.

할인율이 적용된 9백18건을 대상으로 할인율 분포 현황을 보면 <표4>와 같다.

특수건물 전체의 평균 할인율은 건물 등이 9.6%, 동산이 18.4%로 나타났다.

건물 등의 경우 최고 할인율(10.0%)이 적용된 물건은 전체의 87.8%(806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동산의 최고 할인율(25.0%)이 적용된 물건은 5.1%(47건)로 낮게 나타났다.

건물, 동산의 경우 최고 할인율이 적용된 물건은 전체 건수의 5.1%(47건)로 극히 저조하게 나타났다.

3. 비특수건물

가. 비대상 건수 및 분포

전체 조사 건수 8백45건중 67건이 조사 거부 등 비대상되어 비대상률은 7.9%로 나타났다.(<표5> 참조) F·O·C계약 및 시행 초기에 따른 인식 부족으로 조사를 거부한 물건이 29.9%(20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인 비대상 물건이 26.9%(18건)로 나타났다.

나. 지역별 분포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지역이 32.6%(254건)로 제일 많은 물건이 분포되어 있으며 경기, 경남, 경북이 전체의 69.2%(538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표6> 참조)

특히 경기 안산시는 전체 대상 물건의 10.4%(81건)로 가장 많은 물건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면적별 분포

면적별 분포를 보면 연면적이 10,000~50,000m²인 건물이 전체의 42.9%(334건)를 점유하고 있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연면적 50,000m² 이상 대형 건물은 전체의 5.0%(39건)로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표7> 참조)

이는 대형 공장의 경우 대부분이 F.O.C 계약으로 인해 현장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사원사별 요청 건수 현황

사원사별 요청 건수를 보면 삼

<표4> 할인율 분포 현황

적용별	건물(기계)				동 산					
	2.1~5.0	5.1~9.9	10.0	계	2.1~9.9	10.0~15.0	15.1~20.0	20.1~24.9	25.0	계
할인율 분포(%)										
건 수	58	54	806	918	112	92	251	416	47	918

<표5> 비대상건수 및 사유별 분포

비대상 사유별	손해율40% 초과	경과년수 미달	20억미만	조사거부	기타	계
건수	12	18	8	20	9	67

<표6> 지역별 분포

지역별	강원	경기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서울	대전	제주	계
건 수	24	254	71	76	36	30	140	144	1	1	1	778

<표7> 면적별 분포

규모별	연면적 5,000m ² 이하	연면적 5,001~10,000m ²	연면적 10,001~50,000m ²	연면적 50,000m ² 이상	계
건 수	146	259	334	39	778

<표8> 사원사별 요청 건수 현황

사원사별	삼성	제일	국제	대한	자보	동양	해동	럭키	현대	쌍용	신동아	A·H·A	CIG	계
건수	128	61	70	36	120	114	42	85	32	54	28	5	3	778

<표9> 만기월별 분포

만기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건 수	70	45	66	61	89	76	32	33	71	73	69	93	778

<표10> 업종별 분포

업종별	광업	금속기계 및 기구공업	전기업	화학공업	펄프및 제지공업	요업및 도석공업	방직공업	제재및 목공업	식료품공업	인쇄및 지공업	석유공업	그밖의	계
건수	1	263	4	158	19	73	98	14	83	27	6	32	778

〈표11〉증권별, 경년계수별 분포 현황

증권별				경년계수별					
국문	영문	국, 영문	계	0.2	0.4	0.6	0.8	1.0	계
599	156	23	778	125	105	71	79	398	778

〈표12〉손해 실적 득점 현황

점수별	200	300	400	450	500	55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계
건 수	1	3	2	9	1	9	6	3	1	5	11	1	16	710	778

〈표13〉평가 항목별 현황(Ⅰ)

항목별 점수별	구내연소 위험	위험물 사용	전기 시설	구조비	위험 구획	톱리스크	경비 상황	소방 자동차
200	*	*	*	*	*	19	*	*
150	*	*	*	388	161	24	*	395
100	531	*	614	46	204	41	619	212
50	172	676	147	*	*	*	*	66
0	75	102	17	344	413	694	159	105
건 수	778	778	778	778	778	778	778	778

〈표14〉평가 항목별 현황(Ⅱ)

항목별 점수별	자동식 소화설비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자동화재 탐지설비	동력소방 펌프설비
100	12	250	175	416	8
60	*	*	85	*	*
50	10	118	*	78	4
30	*	*	38	*	*
0	756	410	480	284	766
건 수	778	778	778	778	778

〈표15〉평가 항목별 총 득점 분포 현황

점수별 분포	총 득 점 별 분 포						
	300이하	300초과 ~500이하	500초과 ~650이하	650초과 ~800이하	800초과 ~1,000이하	1,000초과	계
건 수	19	144	203	236	149	27	778

〈표16〉적용 할인율 분포 현황

할인율(%) 분 포	5.0 이하	5.1~10.0	10.1~15.0	15.1~20.0	20.1~24.9	25.0	계
건 수	131	113	97	205	214	18	778

성이 16.5%(128건)로 제일 많이 요청하였으며 삼성화재, 한국자보, 동양화재 등 3개사가 전체의 46.5%(362건)를 차지하고 있다. (〈표8〉 참조)

외국사 2개사의 경우 1.0%(8건)로 신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사의 경우 대부분 F.O.C계약물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만기 월별 분포

만기 월별 분포(〈표9〉 참조)를 보면 5월, 12월이 전체의 23.4%(182건)로 제일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7월, 8월이 8.4%(65건)로 낮게 나타났다.

바. 업종별 분포

화재보험 요율서에서 분류한 13개 업종에 따른 업종별 분포를 보면 금속기계 및 기구 공업이 전체 대상 물건의 33.8%(263건)로 제일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며, 금속기계 및 기구 공업, 화학공업, 방직공업, 식료품공업이 전체의 77.4%(602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이한 사항으로 광업소 1개소, 수력발전소 4개소 등도 포함되어 있다. (〈표10〉 참조)

사. 증권별, 경년 계수별 분포 현황

물건 구분을 보면 전체 대상 건수 7백78건 중 국문증권이 전체의 77.0%(599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문 증권은 20.1%(156건)로 낮게 나타나 영문요율의 국문요율 사용 확대를 유도하려는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 기간을 보면 보험가입기간이 5년 이상 경과(경년 계수:1.0)한 물건이 전체의 51.2%(39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물건 평균 보험가입기간은 4년(경년계수:0.8)으로 나타났다. (〈표11〉 참조)

아. 손해 실적 득점 현황

손해 실적 득점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물건의 91.3%(710건)가 손해 발생이 없었으며 나머지 8.7%(68건)가 손해 발생 횟수

및 손해율이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표12> 참조)

자. 평가 항목별 현황(Ⅰ)

우량 할인을 산출표의 평가 항목별로 분석하면 구내 연소 위험은 전체 대상 건수의 68.3%(531건)가 구내 각 건물(시설)간의 평균 거리가 10m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물시설·전기시설이 양호하여 최고 점수를 부여한 것이 각각 86.9%(676건), 78.9%(614건)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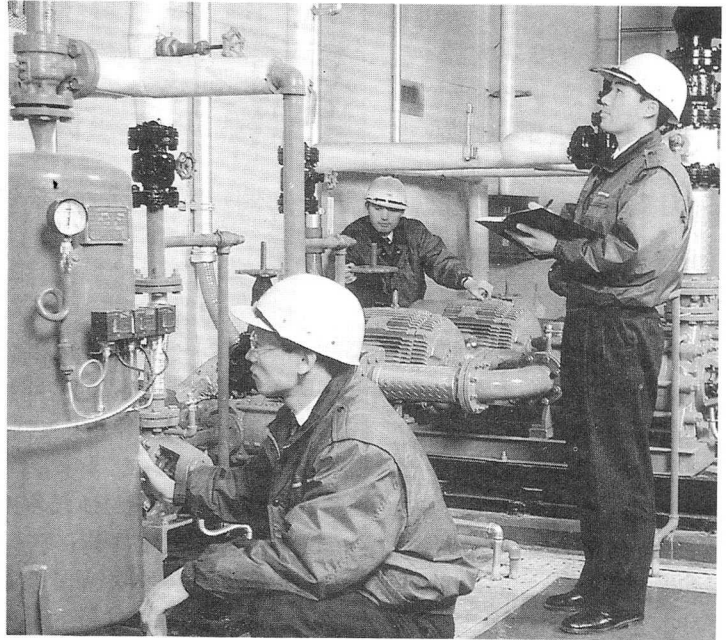
구조급수가 1급 및 2급인 건물의 합계 면적에 대한 구내 건물 전체 합계 면적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양호한 건물은 49.9%(388건),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의 위험구획 상태가 1.5 이하로 양호한 건물 20.7%(161건), 톱리스크(Top Risk)의 보험가입 금액이 구내 전체 보험가입금액의 50% 이상으로 불량한 경우가 89.2%(694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비상황 및 공설소방차 확보여부는 각각 79.6%(619건), 86.5%(673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3> 참조)

차. 평가 항목별 현황(Ⅱ)

자동식 소화설비가 건물 총 연면적의 50% 이상이 설치되어 있고, 소화 성능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최고 점수를 부여받은 건물은 전체 대상 건수의 1.5%(12건)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내·외 소화전의 경우, 건물 총 연면적의 80% 이상이 설치되고 방수압력 및 방수량이 기준치 이상 양호한 건물은 전체 대상 건수의 32.1%(250건), 22.5%



(175건)로 나타났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건물 총 연면적의 80% 이상이 설치되어 있고, 경보 성능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최고 점수를 부여받은 건물은 전체 대상 건수의 53.5%(416건)로 나타났다. 동력소방펌프설비의 경우 점수를 부여받은 건물은 1.5%(12건)로 극히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표14> 참조)

카. 평가 항목별 현황(Ⅲ)

항목별 총 득점 분포 비율을 보면 650점 초과 800점 이하가 전체의 30.3%(236건)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하고 있으며, 최고 점수는 150점, 전체 평균점수는 670점으로 나타났다.(<표15> 참조)

타. 적용 할인을 분포 현황

적용 할인을 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건수의 27.5%(214건)가 20.1~24.9%의 할인을 적용 받았으며, 최고 할인을 적용 받은 건수는 전체의 2.3%(18건)

로 극히 낮으며, 전체 평균 할인율은 15.0%로 나타났다.(<표16> 참조)

4. 평가 및 전망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아 시행 초기에는 보험계약자 및 사원사 등의 인식 부족으로 자료 협조의 미흡 또는 현장 조사 거부 등 현장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20년간 축적된 협회의 방재기술을 바탕으로 총 2천1백57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험료의 할인 혜택과 방재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향후 동 할인 제도가 보다 많은 물건에 적용되리라 보며 '95년 4월부터는 일반물건에도 적용되리라 본다.

이 제도가 발전하려면 협회, 사원사, 보험계약자 모두가 상호 협력하여 동 할인 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